

地黃飲子の 起源, 方解 및 活用に 대한 考察

홍승현, 김윤경, 권동렬
원광대학교 약학대학 한약학과

Abstract

Study on The Origin, Explanation and Application of Jihwangeumja(地黃飲子)

Hong Seung-Heon, Kim Yun-Kyung, Kwon Dong-Yeul

College of Oriental Pharmacy, Wonkwang University, Iksan, Jeonbuk 570-749, Korea

The source of prescription of Jihwangeumja to treat the mental confusion due to phlegm caused by kidney deficiency and Yin and Yang deficiency is found in "Hwangjesomunseonmyeongronbang 《黃帝素問宣明論方》". The source of prescription of Jihwangeum is found in "Seongjechongnok 《聖濟總錄》". Therefore, it seems reasonable to change the prescription to "Jihwangeum" from "Jihwangeumja" and to change the source of prescription to "Seongjechongnok 《聖濟總錄》" from "Hwangjesomunseonmyeongronbang 《黃帝素問宣明論方》". In addition, "Jihwangeum" is influenced by "Naebosan" in "Cheongeumbang 《千金方》". Jihwangeumja gave the substantial influence on the treatment of "Endogenous wind due to hyperactivity" of Yeopcheonsa. Jihwangeumja supplements the true Yuan, smooths the circulation of the flow inside a body and coordinates the interaction between heart and kidney so that it

교신저자 : 권동렬

전북 익산시 신용동 344-2 원광대학교 약학대학 한약학과 본초학교실

Tel : 063) 850-6802 E-mail : sssimi@wonkwang.ac.kr

접수 : 2003/5/22 수정 : 2003/5/25 채택 : 2003/5/30

ultimately eliminates sputum and activates circulation inside a body. If the guideline of diagnosis is accurate, many kinds of diseases can be effectively treated through the principle of treating different disease with the same therapy. In addition, it will be also effectively used for headache after cerebral hemorrhage, trigeminal neuralgia(sore tongue), diabetes insipidus, nervous breakdown, hyperthyroidism, chronic glomerulonephritis, infertility and anemia.

Key word : Jihwangeumja(地黃飲子), Jihwangeum(地黃飲), embi(Impossible of speaking or working.瘖瘖), Naebosan(內補散), Youhagan(劉河間), Yeopcheonsa(葉天士), Endogenous wind due to hyperactivity(陽化內風)

I. 緒 論

地黃飲子は 劉河間の 《黃帝素問宣明論方》에서 처음 수재된 처방으로 “內奪而厥, 舌瘖不能言, 二足廢不爲用, 腎脈虛弱, 其氣厥不至, 舌不仁. 《經》云瘖瘖, 足不廢用, 音聲不出, 地黃飲子主之”라 하였다¹⁾. 補腎益精, 寧心開竅하는 효능으로 腎氣虛弱, 卒然四肢厥逆, 足廢不能行 舌強不能語 口乾不欲食 등을 치료한다 하였다. 역대 많은 의가들에 의해 중풍치료에 응용되어 왔으며, 특히 《東醫寶鑑》에서는 “治中風舌瘖足廢 腎虛氣厥 不至舌下”의 경우에 사용한다고 하여²⁾ 노화와 동반한 각종 증상뿐만 아니라 고혈압, 동맥경화증, 중풍후유증, 신성신염 등의 치료에 응용되고 있다. 본 방의 실험적 연구로는, 血栓症에 탁월한 치료효과를 洪³⁾등이 보고하였고, XO/HX로 損傷된 神經細胞에 회복효과를 李⁴⁾등이 보고하였고, 혈관내피세포의 산화적 손상에 대한 우수한 방어기전 작용을 鄭⁵⁾등이 보고하였다. 또한 임상연구에서는 姜⁶⁾등이 腦溢血후 頭痛, 三叉神經痛(舌痛) 및 尿崩症 치료에 탁월한

임상효과를 보고하였다. 項²⁷⁾등이 風痺 치료에 우수한 효과를 보고하였다. 孫²⁸⁾등이 腦梗塞 치료효과를 보고하였다.

하지만 地黃飲子에 대한 方源, 瘖瘖에 대한 고찰 및 劉河間の 學說사상과의 상관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地黃飲子の 처방을 시대적으로 비교 연구함으로써 방제의 독특한 의미를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여 본 연구를 하였다. 특히 地黃飲子の 方源, 方解, 瘖瘖와 유하간(劉河間)의 學說사상을 고찰함으로써 방제의 學說연구뿐만 아니라 임상응용에 큰 도움이 되리라 사료된다.

II. 本 論

1. 地黃飲子の 方源

《千金方》중의 많은 방제들은 후대 의가들이 참조하여 새로운 방제로 발전되었는데, “治男子五勞六絕”의 “內補散”(乾地黃, 巴戟天, 甘草, 麥門冬, 人蔘, 菴蓉, 石斛, 五味子, 桂心, 茯苓, 附子, 菟絲子, 山茱萸, 遠志, 地膚子)이 그 예에 속하는데⁶⁾, 이는 실제

【Table 1】 地黃飲子の 처방내용, 차이점, 主治 및 인용문헌

처방명	처방내용(용법)	차이점	主治	인용문헌	참 조
內補散	乾地黄五分, 巴戟天半兩, 甘草, 麥門冬, 人蔘, 菴蓉, 石斛, 五味子, 桂心 茯苓, 附子各一兩半, 菟絲子, 山茱萸各五分, 遠志半兩, 地膚子五分.	甘 草 人 蔘 菟絲子 地膚子	治男子五勞六絕	千金方	A.D 581-682
地黃飲	熟地黄, 山茱萸, 肉菴蓉, 巴戟天, 麥門冬, 石斛, 五味子, 附子, 肉桂 白茯苓, 石菖蒲, 遠志. 等分. 上十二味剉如麻豆, 每服三錢, 生薑三片, 大棗二枚. 同煎七分		腎氣虛厥, 語言不出, 足廢不用	聖濟總錄	A.D 1111-1117
地黃飲子	熟地黄, 山茱萸, 肉菴蓉, 巴戟天, 麥門冬, 石斛, 五味子, 附子, 肉桂 白茯苓, 石菖蒲, 遠志. 等分. 上爲末, 每服三錢, 生薑五片, 大棗一枚, 薄荷同煎至八分.	地黃飲과 같으며, 用 法에서 薄 荷가 추가 되어 있음	腎氣虛厥, 語言不出, 足廢不用	宣明論方	A.D 1172年

로 하간(河間)의 地黃飲子에 큰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

本方은 《聖濟總錄·券五十一腎臟門瘕瘵》에 地黃飲으로 기재되어 있는데⁷⁾, 腎氣虛厥, 語言不出, 足廢不用한 者를 주 치료하였다. 劉河間의 《黃帝素問宣明論方·券二諸證門》를 살펴보면 地黃飲子가 기재되어 있다¹⁾. 두 서적의 방제를 비교해보면 主治는 같으며, 藥物組成도 같은데 단지 用法중에 《宣明論方》에 薄荷가 더 추가되었다. 本方치료의 證은 下元虛衰하고 陰陽兩虧하여, 虛風內動으로 痰阻竅閉를 목표로 한다. 고

로 熟地黄, 山茱萸, 肉菴蓉, 巴戟天, 麥門冬, 石斛, 五味子, 附子, 肉桂등으로 陰陽併補하고, 茯苓, 石菖蒲, 遠志등으로 化痰開竅한다. 喻昌은 《醫門法律券三中風諸方》에서⁸⁾ “至其濁陰之氣, 必橫格于喉舌之間, 吞咯維艱, 昏迷特甚, 又非如不言之證可以緩調. 方中所用桂, 附, 巴, 菴, 原爲驅逐濁陰而設, 用方者不可執己見而輕去之也” 라 하였다. 本方은 溫補에 치우쳐 있는데, 만약 氣火上昇하고 肝陽偏亢하여 갑자기 나타나는 瘕瘵증에는 신중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宣明論方》출판 연대를 살펴보면 金大定

二年(A.D 1172年)이고, 《聖濟總錄》은 政和年間(A.D 1111-1117年)으로, 《聖濟總錄》이 《宣明論方》보다 최소한 55년이 앞서 있다.

《聖濟總錄》은 당시 북송(北宋)정부가 편찬한 책인데, 편찬된 뒤 얼마 되지 않아 1127년에 정강의 변(여진(女眞) 민족이 세운 금(金)이 요(遼)를 쳐서 멸망시킨 여세로, 1126년 송나라 수도 開封을 점령하고 휘종(徽宗)과 함종(欽宗)을 포로로 잡아 북송 왕실의 혈통이 중단된 정변)을 당한다. 이로 인해 편찬된 책은 북송 의가들이 쉽게 볼 수 없어 거의 인용할 수 없었다고 한다. 이 책은 당시 민간처방과 의가들의 경험방과 '內府'에서 소장중인 처방등으로 편찬되었다. 그 뒤 金大定年間(1161-1189年)에 정부주도로 다시 편찬한 기록이 있다. 金과 北宋의 전쟁시기의 특수 상황이라 하더라도 처방과 主治가 같은 방제가 거의 유사한 이름으로 50년의 공백이 있다는 것은 첫째, 50년전에 이 처방이 존재하여 광범위하게 통용되었거나 둘째, 후대가 전대의 처방을 참조하여 방제명과 용법을 약간 변경하였거나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래서 地黃飲子の 方源은 《聖濟總錄》으로, 方名도 “地黃飲”으로 보는 견해가 타당성이 있는 듯 하다 할 것이다.(Table 1)

2. 유하간(劉河間)의 학술사상

유하간(劉河間)의 治療用藥특징은⁹⁾ 降心火와 益腎水를 중시하여, 臟腑變亂興衰로 인한 陽實陰虛證에 이용되었다. 그는 腎水眞陰을 보하여, 陰이 足하면 陽火는 自平한다고 인식하였다. 腎은 水에 속하고, 心은 火에 속하고, 水는 內清明而外不彰, 靜順信平,

潤而下善萬物하고, 火는 外明耀而內煩濁, 炎上而燔熇萬物한다고 인식하였다. 陽盛陰虛한 병은 水弱火强하여, 頭目昏眩, 耳鳴或聾, 上氣喘咳, 涎唾稠粘, 口苦舌乾, 咽喉不利, 肢體焦痿, 筋脈拘攣, 中外燥澀, 便溺閉結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데 이는 모두 陽實陰虛의 증상에 속하며, 七情에 의한 譴, 妄, 狂越 등의 증상도 五志化熱하여 水虛火旺한다고 보았다. 그는 心火暴盛, 腎水虛衰 이유로 中風이 생성된다고 강조하였고, 內風火盛의 학설을 창제하였다, 消渴 역시 腎水가 心火를 이기지 못하여 上下 모두 열이 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그리하여 水少火多하고 陰虛陽實한 질환 치료에는 益腎水와 降心火를 주장하였고 이로서 養陰退陽한다고 보았다. 益腎水와 降心火의 관계에서 益水와 降火는 證에 따라 치료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또한 補益腎精法을 잘 사용하였는데 이는 火歸水中의 방법으로 유명한 地黃飲子도 그 중에 하나였다. 또한 이 방제는 腎虛足廢不用, 火旺乘金暴瘖失語와 中風後遺症等에도 잘 응용되었다.

3. 地黃飲子の 方解

本方の 藥物組合을 分析해보면 熟地黃, 山茱萸는 滋補腎陰하고, 巴戟天, 肉蓯蓉은 溫壯腎陽하고, 附子和 肉桂의 辛熱은 眞元을 보하고 攝納浮陽한다. 麥門冬, 石斛, 五味子是 滋陰斂液하여 陰陽相配한다. 茯苓, 石菖蒲, 遠志는 心腎을 交通시켜 化痰開竅한다. 본방은 八味丸에서 三瀉하는 약물을 去하고 肉蓯蓉, 巴戟天, 五味子を 가하여 腎을 補하는 것을 주로 하여 本을 치료하며 石斛과 더불어 強筋骨하여 足廢를 治하고 定志丸, 生脈散의 一部를 加味하여 開竅安神 生脈하여 언어장애를 치료하며¹⁰⁾, 上下併

【Table 2】 地黃飲子の 구성약물 및 작용

구 성 약 물	작 용	비 고
熟地黄, 山茱萸	滋補腎陰	
肉蓯蓉, 巴戟天	溫壯腎陽	
附子, 肉桂	辛熱로 眞元을 보하고 攝納浮陽한다.	
麥門冬, 五味子	滋陰斂液하여 陰陽相配한다.	潤肺化痰 生脈
石斛	強筋骨, 開竅	
茯苓, 石菖蒲, 遠志	心腎을 交通시켜 化痰開竅한다. 寧神 益智 開心竅	滋腎陰補腎陽

治, 標本兼顧, 滋腎陰, 補腎陽, 開竅化痰하는 효능이 있다.(Table 2)

地黃飲子の 방제의미를 분석해본 결과 河間은 확실히 《內經》의 瘡痲證에 의미에 따라 造方한 것으로 이해된다. 종합적으로 살펴본 결과 본방을 사용하여 腎之陰水得復, 陽氣復旺, 陽恢陰復하여 능히 滲營其經絡, 溫潤濡養肢體할 수 있다. 또한 腎脈上挾舌 본인데 陰精이 充足하면, 舌繫得灌되면 陽氣가 鼓動하여 聲이 自出한다.

地黃飲子로 溫潤腎元 위주로 老年病症을 치료하는데, 《靈樞·衛氣失常第五十九》에서 “人生五十以上爲老”라 했는데¹¹⁾ 나이로 말하면 오십은 초로이지만 생리상황으로 말하면 오십은 반드시 늙은이가 아니다. 腎氣가 衰하면 早老하지만, 腎氣가 盛하면 “能却老而全形”하여 “天壽過度”한다. 고로 老人病을 치료할 때, 補益腎元를 중히 여긴다. 本方에서 附子와 肉桂가 溫熱之弊가 있으나, 노년의 고질병인 積虛難返之勢者에게 振廢興衰하는 효과와, 많은 滋陰柔潤하는 약과 배합 시 去剛存柔 溫而滋潤하는 작용으로 사용된다. 또한 上盛下虛에 속하는 煩燥, 面紅, 口乾, 高血壓등의 치료에 引火歸元의 妙를 이용하여 陰盛陽竭에 치료한다.

4. 瘡痲에 대한 考察

瘡痲는 下元虛衰하기 때문이다. 《素問·靈蘭秘典論篇》에서 “腎爲作強之官, 伎巧出焉”라 하였다¹²⁾. 作強伎巧은 精力充沛, 思維敏達, 輕勁有力, 靈巧多能하는 것이다. 腎은 藏精하고 主骨生髓하며, “腦爲髓之海”라 하는데, 腎精이 虧損되면 髓空骨軟하여 足廢不能用以되는 것이다. 陽不化陰하면 痰濁阻竅하여 말을 못하게 된다. 虛陽上越하면 眞陰內奪하면 口乾不慾飲한다. 이외에 髓海空虛하여 遲鈍健忘하고, 水火不濟하여 寒熱不調가 나타난다. 地黃飲子로 治療시 眞元을 보하여 通上達下하고 水火相濟하여 痰化竅通하는 효능으로 辨證만 정확하면 異病同治로 모두 효험이 있다. “瘡痲”는 《素問·脈解篇》에서 “內奪而厥, 則爲瘡痲, 此腎虛也, 少陰不至者, 厥也”라 하였다¹³⁾. 고로 여기서 “腎虛”역시 “腎陰陽兩虛로 清陽之氣當昇不昇, 當實不實, 故謂之厥”이다. 여기서 “少陰不至者, 厥也”라는 의미는 《素問識》에서¹⁴⁾ “少陰不至者, 以陰虛無氣, 無氣則陽衰, 致厥之由也.”라 설명하였다.

여기에서 “內奪而厥”이 瘡痲證의 病因病機임을 명확히 말해준다. “此腎虛也, 少陰不至者, 厥也”는 더욱 진일보하여 病理變化를 설명하고 있다. “內奪”은 “內, 謂房勞也.

【Table 3】瘖俳에 대한 내용考察

인용 문헌	내용 (비고)
素問·靈蘭秘典論篇	“腎爲作強之官,伎巧出焉”. “腦爲髓之海”
素問·脈解篇	“內奪而厥, 則爲瘖俳, 此腎虛也, 少陰不至者, 厥也” “腎虛”, “腎陰陽兩虛勞 清陽之氣當昇不昇, 當實不實, 故謂之厥” “少陰不至者, 厥也”
類經四券十一注	“內奪者, 奪其精也, 精奪則氣奪而厥, 故聲瘖於上, 體廢於下.”
素問·厥論篇	“此人質壯, 以秋冬奪于所用, 下氣上爭不能復, 精氣溢下, 邪氣因從之而上也, 氣因于中, 陽氣衰, 無以滲營其經絡, 陽氣日損, 陰氣獨在, 故手足爲之寒也.”
宣明論方	“治瘖俳, 腎虛厥逆, 語聲不出, 足軟不用”

奪, 耗其陰也”라 하였다. 《類經》十四券十一注에서는¹⁵⁾ “內奪者, 奪其精也, 精奪則氣奪而厥, 故聲瘖於上, 體廢於下.”라 하였다. 《素問·厥論篇》에서¹⁶⁾ “此人質壯, 以秋冬奪于所用, 下氣上爭不能復, 精氣溢下, 邪氣因從之而上也, 氣因于中, 陽氣衰, 無以滲營其經絡, 陽氣日損, 陰氣獨在, 故手足爲之寒也.”라 하여 縱慾過度, 強奪腎精, 精氣耗散, 元陽隨之而虛라 하였다.

“厥”은 《素問直解》에서¹⁷⁾ “厥, 猶逆也. 經脈之血, 皮毛之氣, 不相順接而厥逆也.”라 하였고, 張景岳은¹⁸⁾ “厥逆之證, 危證也, 蓋厥者盡也, 逆者亂也, 則氣血敗亂之謂也.”라 하였다. 여기서 “厥”은 陰陽의 氣가 서로 順接하지 못한다는 뜻이다. “此腎虛也”는 病位가 腎에 있고, 性質은 虛에 속한다. 《黃帝內經素問白話解》에서 《內經》原文의 解釋은 “人若縱慾過度, 耗散陰精, 因使腎虛....., 引起了腎氣不能上達舌體而瘖啞, 腎氣不能下達而足痿的病變. 因而說, 厥逆的形成, 是因爲少陰腎氣不至的緣故”로 종합적으로 볼 때 瘖俳證의 《內經》원래의 뜻은 縱慾過度가 發病原因이며, 腎의 陰陽俱虧, 少陰經氣無가 上充下榮의 發病之理이다.

河間은 《黃帝素問宣明論方》瘖俳證侯의 “主腎虛”를 설명할 때 이 방제의 功用에 대하여 “治瘖俳, 腎虛厥逆, 語聲不出, 足軟不用”이라 하였다. 河間의 瘖俳證에 대한 病因病機의 理解와 《內經》의 본래의 의미가 일치하는데, 石菖蒲, 遠志 두 약물 사용을 볼 때 이 방제의 효능은 “開竅化痰”보다는 滋腎陰補腎陽에 치중하고 있다. 《本草綱目》에서 遠志는¹⁹⁾ “補不足”, “益精”과 “堅壯陽道”의 효과가 있으며, 遠志의 益은 “益精補陰氣”한다고 하였다. 時珍 또한 “遠志入足少陰腎經, 非心經藥也”한다 하였다. 고로 遠志가 神經에 들어가 益智하는 효능이 있다. 《本草綱目》에서 石菖蒲²⁰⁾는 “能治一切諸風, 手足頑痺, 癱緩不遂, 五勞七傷, 填血補腦, 堅骨髓, 長精神, 潤五臟, 裨六腑...”라 한다. 고로 河間은 이 두 약의 益精填血하고 補腎하는 효능을 본 방에 이용한 듯하다.(Table 3)

5. 후대에 미친 영향

王肯堂²¹⁾은 腎과 胞絡內絶로 그 氣가 喉嚨舌本에 이르지 못한 言語障得에 활용하였으며, 葉天士가 身의 陽氣의 動變으로 인해

內風動越한 일종의 병리현상으로 여러 가지 원인과 장부의 성쇠에 의해 나타난다고 주장한 “陽化內風”에²²⁾ 영향을 주었다. 특히 “肝爲風木之臟, 有相火內寄, 體陰用陽, 其性剛, 主動主升” 작용으로 간의 생리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陽化內風에는 몇 가지 방면이 있는데, 그 중 陰陽俱損, 氣血衰憊, 肝失濡養하면 陽浮風動하는데, 中風후에 偏枯, 肢麻, 言謇, 神呆, 遺溺, 足痿등의 症狀이 자주 나타날 때, 溫柔濡潤 補虛息風의 治법을 이용하였다. 이때 熟地黃, 牛膝, 山萸肉, 枸杞子, 肉苁蓉, 天門冬, 遠志, 巴戟天, 天麻등을 상용하는데 河間의 영향이라 할 수 있다. 徐靈胎²³⁾는 少陰氣厥不至로 인한 中風의 舌瘖不能言, 足廢不能行에 응용하였고, 何夢瑤²⁴⁾는 腎精血의 虧敗亡失로 인하여 火氣上衝한 病證의 治方으로 이용하여, 補腎利窺 溫陽之劑로서 주로 中風後遺證 치료에 응용하였다.

6. 현대 임상적 응용²⁶⁾

1) 腦溢血후 頭痛

腦溢血昏迷는 肝腎不足, 水不涵木, 虛風浮陽하여 痰飲이 清竅를 범하여 頭痛과 頭眩 目花이 나타날 때 滋水涵木, 柔肝潛陽하고 化痰清竅하는 地黃飲子の 效能으로 임상효과를 볼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2) 三叉神經痛(舌痛)

三叉神經痛(舌痛)은 “諸風主動, 善行而數變”과 “諸風掉眩, 皆屬于肝”로 이해한다²⁵⁾. 肝腎虧虛, 陽浮風動, 走竄舌絡 할 때 補益肝腎, 育陰潛陽하고 化痰熄風痛絡 하는 地黃飲子の 작용으로 임상효과를 볼 수 있으리라 사려된다.

상기 이외에 高血壓, 動脈硬化症, 尿崩症, 神經衰弱, 甲狀腺機能亢進症, 慢性腎炎, 不妊症과 貧血등에도 유용하게 응용할 수 있으리라 본다.

Ⅲ. 要約 및 總括

상기 고찰에서와 같이, 下元虛衰하고 陰陽兩虧하여 虛風內動으로 痰阻竅閉를 치료 목표로 하는 地黃飲子の 方源은 《黃帝素問 宣明論方》보다 약 50년 앞선 소개된 《聖濟總錄》으로, 方名도 “地黃飲子”에서 “地黃飲”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地黃飲子是 《千金方》 “治男子五勞六絕”의 “內補散”과 《聖濟總錄》의 “地黃飲”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地黃飲子是 후대에 많은 의가들에게 영향을 주었으며 특히 葉天士의 “陽化內風”의 치료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이해된다.

《東醫寶鑑》에 “治中風舌瘖足廢 腎虛氣厥不至舌下”의 경우에 사용한다고 하는데²⁾, 이는 腎氣虛厥로 인해 설인신경의 기능에 손상을 주어 언어장애가 생기는 것으로 이해되며 추후 더 상세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되리라 본다.

地黃飲子로 治療시 眞元을 補하여 通上達下하고 水火相濟하여 痰化竅通하능 효능으로 辨證만 정확하면 異病同治로 모두 효험이 있으리라 사료된다. 그래서 高血壓, 動脈硬化, 腦溢血후 頭痛, 三叉神經痛(舌痛), 尿崩症, 神經衰弱, 甲狀腺機能亢進症, 慢性腎炎, 不妊症과 貧血등의 임상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參 考 文 獻

1. 周喜民責任編著. 金元四大家醫學全書上. 天津科學技術出版社. 1996年 2月 第一版. p.53
2. 楊蘊祥, 劉翠英. 古今名方. 한국메디칼인덱스사. 1992. p.553
3. 홍을희. 地黃飲子が 흰쥐의 血栓症에 미치는 影響에 關한 研究. 東國大學校대학원. 1991
4. 이용근. 地黃飲子와 加味地黃飲子 推出液이 XO/HX로 損傷된 培養 海馬神經細胞에 미치는 效果. 圓光大學校대학원. 2001.
5. 정용준. 혈관내피세포의 산화적 손상에 대한 지황음자의 방어기전 연구. 圓光大學校대학원. 2002
6. 孫思邈著. 備急千金要方. 人民衛生出版社. 1995年 5月 第一版. p.352
7. 趙佶編. 聖濟總錄. 人民衛生出版社. 1962年 10月 第一版. p.655
8. 陳熠主編. 喻嘉言醫學全書.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年 8月 第一版. p.255
9. 裘沛然主編. 中國歷代各家學說. 上海中醫藥出版社. 1984年 第一版. p.66
10. 尹用甲著. 東醫方劑와 處方解說. 도서출판 醫聖堂. 1998年 p.626
11. 南京中醫學院中醫系編著. 黃帝內經素問語譯.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7年 9月 第5版. p.354
12. 郭靄春主編. 黃帝內經素問語譯. 人民衛生出版社. 1992年 9月 第一版. p.56
13. 郭靄春主編. 黃帝內經素問語譯. 人民衛生出版社. 1992年 9月 第一版. p.289
14. 徐嘉. 甘肅中醫學院學報. 第十一卷 第一三期. 1994年 3月 p.14-15
15. 張介賓著. 張氏類經. 文光圖書有限公司. 1969年 9月 再版. p.290
16. 郭靄春主編. 黃帝內經素問語譯. 人民衛生出版社. 1992年 上冊. p.269
17. 高士宗著. 黃帝素問直解. 科學技術文獻出版社. 1982年 8月 第二版. p.325
18. 張介賓著. 景岳全書. 人民衛生出版社. 1991年 6月 第一版. p.240
19. 李時珍著. 本草綱目. 1982年 11月第一版, 上冊. p.748-749
20. 李時珍著. 本草綱目. 1982年 11月第一版. 上冊. p.1357-1358
21. 王肯當. 證治準繩.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4年 券一. p.9-10
22. 裘沛然主編. 中國歷代各家學說. 上海中醫藥出版社. 1984年 第一版. p.257
23. 徐靈胎. 徐靈胎醫學全書. 徐靈胎. 五洲出版社. 1982年 券二. p.73-74
24. 何夢瑤. 醫碁.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2年. p.55
25. 郭靄春主編. 黃帝內經素問語譯. 人民衛生出版社. 1992年 9月第一版. p.553
26. 姜萃松. 地黃飲子臨床驗案舉隅. 湖南中醫雜誌. 1987年 第6期. p.19-20
27. 項葛霖. 風痹治驗. 浙江中醫雜誌. 1997年 32(9). p.414
28. 孫墨. 地黃飲子爲主治腦梗塞29例. 中醫雜誌. 2000年 41(4). p.203